

2026년 9월 10일 제 9호 발행

새노조 조합원 수련회

KT 새노조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1박 2일간 충남 보령에서 조합원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국지성 호우와 더운 날씨에도 전국 새노조 조합원의 과반수가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교육을 받고 방영식 부위원장님이 정성껏 준비한 맛있는 백숙과 회 등 풍성한 저녁식탁을 즐겼습니다.

온라인에서, 전화로만 소통한 조합원들과 집행부가 함께 어우러져 자연을 즐기며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함께 한 모든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리며 내년엔 더 많은 조합원이 참여하는 수련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청 노동자 중대사고

지난 8월 19일 제주 통신공사 현장에서 KT 넷코어 하청업체 노동자가 기울어진 전주 인근에서 고소작업을 하던 중 약 4m 높이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전주는 올해 초부터 주민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노조는 이번 사고가 위험시설에 대한 관리부실과 하청노동자에게 위험이 전가된 결과라며 **원청 KT의 책임 있는 대응과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KT에 ▲제주 사고와 부산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책임 인정 및 피해 노동자 지원 ▲기울어진 전주 방치와 작업 지시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 ▲다단계 하청구조 개선과 원청 직접 안전관리 강화 ▲안전설비·인력에 대한 투자 확대 ▲원하청노사 공동 안전보건 실태조사단 구성 ▲폭염·폭우 등 기후위기 대응과 실질적인 2~3인 1조 작업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한 요구사항에 대한 KT의 성실한 답변과 박윤영 대표이사와의 공식 면담을 촉구하며, 책임 회피와 미온적인 대응이 계속될 경우 고용노동부 및 사법당국에 관련 법 위반을 제기하고 사회적 연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KT 새노조 공지 사항

****수도권 조합원 모임****

일시: 9월 16일 19시

장소: 새노조 사무실 (KT 동작빌딩 406호)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차 가능합니다